특별기고

전남 유자, 남도의 향기 넘어 세계의 맛을 열다

이승돈

농촌진흥청장

요즘 식품 매장이나 세련된 카페, 해외 농식품 박람회 현장을 둘러보면 '유자'라는 이름을 전보다 훨씬 자주 만나게 된다. 한때 우리에게 유자는 겨울철 따스한 유자차 한 잔으로 기억되던 익숙한 과일이었다. 그러나 지금의 유자는 음료와 소스를 넘어 젤리, 제과, 그리고 고기능성 화장품 원료에 이르기까지 그 쓰임을 무한히 넓히며 우리 농업이 가진 새로운 가능성을 증명하고 있다. 익숙한 향기가 하나의 산업이 되고, 지역의 특화 작목이 세계 시장의 주역으로 나아가는 변화의 중심에는 바로 '전남 유자'가 있다.

전남은 우리나라 유자 산업의 명실상부한 중심지다. 전국 재배 면적의 약 80%가 이곳에 집중되어 있으며, 특히 고흥과 완도는 따뜻한 기후와 풍부한 강수량 덕분에 최적의 재배 조건을 갖추고 있다. 이곳에서 농업인의 오랜 경험과 농촌진흥청의 첨단 기술이 만났다. 그 결과 전남 유자는 이제 지역의 경계를 넘어 국가를 대표하는 전략 작목으로 당당히 성장했다.

성과는 지표로 증명된다. 지역특화 작목 육성 사업을 본격화한 후, 전남 유자 생산액은 2020년 250억원에서 2024년 696억원으로 178.4% 이상 급증했다. 수출액 또한 2,600만 달러를 돌파하며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다. 이는 단순한 숫자의 증가를 넘어, 우리 농산물이 글로벌 밸류체인(Value Chain)의 핵심 소재로 안착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물론 이러한 비약적인 성장이 저절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농촌진흥청과 전남농업기술원은 유자 산업 전반을 혁신하기 위해 현장의 고질적인 문제부터 하나씩 풀어갔다. 그 시작은 '품종의 혁신'이었다. 재래종 유자는 씨가 너무 많아 가공 효율이 낮고 일손이 많이 드는 것이 치명적인 약점이었다. 우리는 가공업체와 농가가 간절히 원하던 씨 없는 유자 '다전금' 품종을 선발해 보급했다. 이 품종은 기존보다 착즙 수율이 4배나 높아 수출용 원료 확보에 혁신적인 전기를 마련했다.

이제 시선은 더 먼 곳을 향한다. 현재 보급 중인 품종 역시 해외 품종을 기반으로 개량되었다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진정한 '품종 주권' 확립을 위해 우리 땅의 기후에 완벽히 적응하고 가공 적성이 뛰어난 '순수 국산 육성 품종'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가시는 적고 생산성은 높으며, 생과와 가공 모두에 적합한 우리만의 유자를 개발해 세계 시장에서 독보적인 경쟁력을 확보할 것이다.

생산 현장의 변화도 눈부시다. 기후 변화에 따른 동해(凍害) 피해를 막기 위해 비가림 시설 재배 기술을 도입하여 수량을 33% 높였다. 토양 장력 센서 기반의 자동 관수 시스템은 생산의 안정성을 획기적으로 높였다. 특히 드론과 SS방제기를 활용한 스마트 방제 체계는 노동 시간을 절반 가까이 줄였다. 고령화라는 농촌의 구조적 문제를 AI 전환(AX) 기술로 극복한 값진 사례다.

혁신은 유통과 가공 단계에서 더욱 빛을 발했다. 부패가 빠르고 갈변이 심한 유자의 고질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존수 세척과 갈변 억제 기술을 적용했다. 부패율은 74% 줄었고, 3주 안팎이던 유통기간은 3개월로 대폭 늘었다. 이는 온라인 판매와 수출 대응력 강화의 발판이 됐고, 제품 경쟁력 향상으로 이어졌다.

그간 수십억원을 들여 폐기하던 연간 5,000t에 달하는 부산물, 유자 박(찌꺼기)과 씨는 10종의 신제품으로 다시 태어났다. 그 결과, 284억여원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며 '버릴 것 없는 유자'라는 또 다른 이름으로 새삼 주목받고 있다. 이제 밭에서 수확하는 것 이상의 가치를 연구실과 가공 공장에서 만들어내고 있는 셈이다.

이 모든 과정의 밑바탕에는 민·관·산·학 전문가 19명이 참여하는 협의회의 끈끈한 '협력'이 있었다. 연구기관이 홀로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농업인과 가공업체, 지역농협이 함께 목소리를 내고 현장에서 해법을 찾았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농업의 미래는 거창한 구호에 있지 않다. "씨가 많아 손질에 품이 많이 든다", "일손이 부족하다"처럼 작은 목소리에도 끝까지 응답하는 진심에서 출발한다. 농촌진흥청은 현장의 불편에 관한 의견을 농업 과학 기술로 풀고, 농업인이 체감하는 변화로 보여주는 데 온 힘을 다할 것이다.

전남 유자를 키운 남도의 바람과 햇살은 K-농식품의 자부심이 되어 전 세계인의 마음속에 더 깊고 진한 향기로 퍼져 나가리라 믿는다. 한국을 넘어 세계에서 손꼽히는 우리 과일, 대표 작목으로 성장할 그날까지 농촌진흥청은 전남 유자의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 함께 나아갈 것이다.

기고

슬세권에 깃든 100만종의 우주

김동관

광주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업부장

매년 5월 22일은 UN이 지정한 '국제 생물다양성의 날'이다. 1992년 브라질 리우 지구정상회의에서 생물다양성협약이 채택된 것을 기념하기 위해 제정된 이날은 단순히 동식물을 보호하자는 구호를 넘어, 지구가 존재하는 근간이자 인류의 현재와 미래를 지탱하는 생물다양성의 절대적 가치를 되새기는 날이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인류 사회가 유례없는 물질적 번영을 구가할수록 그 번영의 토대이자 생명줄인 생태계는 심각한 붕괴 위기에 직면해 있다.

산업혁명 이후 불과 200여년 사이 인류는 거주지의 중심을 자연 부락에서 도시로 급격히 옮겼다. 현재 한국 인구의 약 92%가 국토 면적의 17%에 불과한 도시 공간에 밀집해 살고 있다. 도시는 전 세계 GDP의 70% 이상을 창출하는 자본과 인구의 중심지이지만, 지구 전체 면적의 2%에 불과한 이 좁은 공간에서의 밀집된 삶은 자연의 희생을 당연한 전제로 삼아왔다. 아스팔트와 콘크리트로 덮인 도시 아래에서 생태계의 실핏줄은 끊겼고, 우리는 자연과 분리된 채 인공적인 풍요 속에서 안주해 왔다.

그러나 생물다양성은 결코 문명과 동떨어진 관념이 아니다. 그것은 문명을 지탱하는 거대한 기둥이다. 식량, 물, 의약품, 기후 안정 등 인류 생존의 필수 요소 대부분을 우리는 자연에 의존한다. 세계경제포럼에 따르면 전 세계 GDP의 절반이 넘는 약 44조달러의 가치가 자연 자본에 기반하고 있다.

또한 육지와 바다 생태계는 인류가 내뿜는 탄소의 절반 이상을 묵묵히 흡수하며 기후 재난의 최후 보루 역할을 수행한다. 문제는 생태계가 촘촘하게 얽힌 그물망과 같다는 점이다. 한 귀퉁이가 끊어지면 전체 시스템이 도미노처럼 무너진다.

현재 지구상에서는 약 100만종의 생물이 멸종 위기에 처해 있으며, 과거 강력한 탄소 흡수원이었던 습지와 숲은 무분별한 개발로 파괴돼 오히려 탄소를 뿜어내는 배출원으로 변해가고 있다. 올해 생물다양성의 날 슬로건은 'Acting locally for global impact'이다. 거창한 국제협약이나 정부 간 담론만큼 중요한 것은 결국 생태계를 회복시키는 실질적인 힘이 우리 마을, 우리 지역의 작은 실천에서 시작된다는 점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2000년대 중반 광주에서 싹튼 '광주 앞산뒷산 네트워크' 활동은 매우 선구적이고 시사하는 바가 크다. 당시 이 활동은 무등산처럼 이름난 국립공원이나 주요 명산에만 주목하던 시각에서 벗어나, 우리가 매일 산책하며 마주하는 해발 100~500m의 '동네 산'과 근린공원을 지키자는 절박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동네 작은 숲의 나무 한 그루가 열섬 현상을 완화하고, 마을 습지의 생태계가 아이들에게 살아있는 교육장이 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이를 뒷받침할 지방정부의 행정적·재정적 유도와 제도적 장치 마련 또한 시급한 과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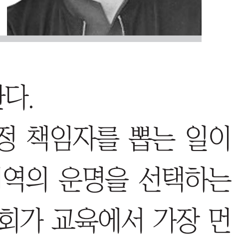
도시 시민으로서 우리가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은 '생태 시민성'의 발현이다. "내 집 앞 10분 거리의 녹지가 나의 건강과 행복을 결정한다"는 의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우리 마을의 작은 녹지 보전 노력이 전 지구적 위기를 해결하는 단초가 된다는 자부심도 가져야 한다.

지구적인 시각으로 우리 마을을 다시 바라보자. 우리가 지역에서 선택하는 삶의 방식과 생명을 대하는 태도가 결국 지구의 지도를 바꾸고 우리의 미래를 결정할 것이다.

이번 생물다양성의 날을 맞아 거창한 계획보다 우리 동네 앞산과 뒷산에 핀 이름 모를 들꽃과 나무, 그곳을 터전 삼아 살아가는 작은 생명들을 애정 어린 시선으로 살피는 일부터 시작해 보길 제안한다. 그 작은 시선이 모여 거대한 생명의 그물망을 다시 짜는 위대한 동력이 될 것이다.

기고

아이들의 미래 앞에서 정치공작은 부끄럽다



박기복

영화감독

교육은 한 시대의 방향을 결정한다.

특히 교육감 선거는 단순한 행정 책임자를 뽑는 일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미래와 지역의 운명을 선택하는 과정이다. 그렇기에 지금 우리 사회가 교육에서 가장 먼저 물어야 할 것은 '누가 더 큰 소리를 내는가'가 아니라 '누가 미래를 준비해왔는가'일 것이다.

지금 전남·광주 교육은 중대한 전환점 앞에 서 있다.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소멸 위기, 그리고 AI 대전환이라는 거대한 변화는 기존의 교육 방식만으로는 더 이상 미래를 담보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 속에서 김대중 교육감은 비교적 이른 시기부터 미래교육의 방향을 고민하며 현장의 변화를 준비해온 인물로 평가받는다.

그는 취임 이후 전남교육을 단순한 입시·암기 중심 체제에서 미래형 교육체제로 전환하는 데 힘을 기울여왔다. AI·SW 교육 확대와 디지털 교실 구축, 교사의 디지털 수업 역량 강화 등은 전국적으로도 선도적인 시도로 평가받았다. 그러나 더 주목해야 할 부분은 기술 자체가 아니다. 교육의 본질을 '지식을 주입하는 일'이 아니라 '미래를 살아갈 힘을 키우는 일'로 바꾸려 했다는 점이다.

농산어촌 교육을 살리기 위한 노력 역시 의미가 크다. 학생 수 감소와 지역 공동체 붕괴 위기 속에서도 작은학교 지원과 통학 환경 개선, 교육복지 확대를 통해 지역교육의 기반을 지켜내려 했다. 교육을 단순히 학교 안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생존 전략의 관점에서 접근했다는 점은 분명 주목할 대목이다.

무엇보다 김대중 교육감의 강점은 현장성에 있다. 보여주기식 행정보다 학교 현장을 직접 찾아 학생·교사·학부모의 목소리를 듣는 데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왔다는 평가가 적지 않다.

학생 정신건강 지원, 학교폭력 예방, 위기학생 상담 확대, 돌봄체계 강화 역시 '아이들의 삶 전체를 돌보는 교육'이라는 철학의 연장선에 있다.

그럼에도 이번 선거 과정에서는 정책과 비전보다 의혹과 네거티브 공세가 지나치게 부각되고 있다. 교육감 선거마저 진영 논리와 공작 정치의 연장선이 된다면, 우리 아이들에게 남는 것은 갈등과 불신의 학습뿐이다.

결국 교육은 한 세대의 운명을 결정하는 일이다. 선거는 잠시지만, 교육의 결과는 아이들의 삶에 오래 남는다. 그래서 교육감 선거만큼은 상대를 끌어내리는 정치가 아니라 미래를 끌어올리는 경쟁이어야 한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소란스러운 구호가 아니다. AI 대전환과 지방소멸이라는 거대한 변화 앞에서 아이들의 내일을 어떻게 지켜낼 것인지에 대한 치열한 고민과 준비다. 교육은 과거를 붙드는 일이 아니라 미래를 여는 일이며, 지역의 희망을 다시 세우는 가장 강력한 힘이기 때문이다.

유권자들은 결국 기억할 것이다.

누가 비난보다 비전을 말했는지, 누가 권력보다 아이들의 미래를 먼저 생각했는지, 누가 정치의 언어가 아니라 교육의 언어로 현장을 지켜왔는지를 말이다.

전남·광주 교육의 미래는 흑색선전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아이들의 가능성을 믿고 시대의 변화를 읽으며 묵묵히 준비해온 사람만이 미래교육의 길을 열 수 있다. 지금 필요한 리더는 의혹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미래를 설계하는 사람이다.

※ 위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사설

민주당만의 리그 "후보 등록일 지방선거 끝"

'설마, 설마'했던 우려가 현실이 됐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아성인 광주전남지역 6·3 지방선거에서 무투표 당선자가 무려 80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8일 이번 지방선거 후보 등록 마감 결과 이 곳에서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선거 5명, 통합교육감선거 4명, 광주 광산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6명 등 모두 781명이 후보로 등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기초단체장 2명, 광역의원 34명, 기초의원 20명, 기초의원 비례대표 24명 등 모두 80명은 경쟁 후보가 없어 사실상 당선을 확정했다.

이는 4년 전 제8회 지방선거 당시 광주·전남 무투표 당선자(63명)에 비해 17명이 늘어난 것이다.

'민주당 공천=당선'이라는 지역 정치 지형상 야권이나 무소속 후보가 출마를 꺼린 탓이다. 실제로 무투표 당선자 80명 중 79명, 98.8%가 민주당 소속이다. 다른 정당은 광주 광산구의원 선거에 출마한 진보당 후보 딱 1명이었다.

이런 현상을 들여다보면 기초단체장 선거의 경우 광주 서구청장과 남구청장 선거에 현직 구청장들이 각각 단독 등록했다.

중대선거구 첫 도입 등으로 전체 70개 선거구에서 79명을 뽑는 광역의원 선거는 43%인 34곳(34명 선출)에서 단독 후보가 등록했다. 또 기초의원 20명, 기초의원 비례대표 24명 등 기초의원 44명도 경쟁 후보 없이 의회에 무혈 입성하게 됐다.

선거일이 보름 남짓 남았는데 단체장부터 지방의원까지 적지 않은 선거가 사실상 끝난 것이다.

문제는 이런 특정 정당 쏠림 현상 심화로 지역의 살림을 맡길 사람을 뽑는 지방선거가 '유명무실'해지고 있다는 데 있다.

선거를 통해 정책과 인물을 비교·검증하는 과정 자체가 사라지는 등 '무경쟁 선거' 구조가 고착화되면서 유권자의 선택권과 견제 기능이 약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후보들도 당내 경선에만 올인하는 '그들만의 리그'에만 집중하고 있어 유권자들의 관심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 정치의 경쟁과 검증을 약화시키고 있는 민주당 독점 구조를 타파하고 유권자의 선택권을 넓히기 위한 중대선거구 확대, 무투표 당선 방지제 도입 등 정치 다양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정치적 장치 마련이 절실하다.

전남 취약지역 찾는 '버스 삼총사' 눈에 띈다

전남도가 도서산간 오지마을 등 의료 혜택·복지 취약지역 등을 찾아가는 행복버스·건강버스·마음안심버스 등 '버스 삼총사'를 운영해 눈에 띈다. 이들이 주민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며 소멸 위기에 놓인 농촌공동체 유지에 한몫을 하고 있어서다.

먼저 '찾아가는 전남 행복버스'는 복지 서비스 취약지역 주민들에게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최근 완도군 신지면 신리마을을 1000번째 방문지로 찾아 기념행사를 열고 주민들을 위한 이동세탁차 운영, 손자·손녀 사진 액자를 제작해 전달했다.

이번 1000번째 방문은 2021년 8월 첫 운행을 시작한 지 4년 9개월 만이다. 운영 초기 코로나19 선별검사 지원 등을 통해 지역사회 감염 확산 방지에 기여한 행복버스는 2022년부터는 주민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현재는 기초검진, 인바디검사, 혈압·혈당 측정 등 보건서비스와 이·미용, 안마, 칼갈이, 키오스크 교육, 네일아트, 틀니·안경 세척 등 28종의 주민 체감형 복지서비스를 하며 계속 진화 중이다.

지금까지 3만1566명의 주민에게 25만4016건의 서비스를 지원했고 지난해 서비스 이용자 만족도 조사에서 99.6%의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생활밀착형 복지사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이다.

전남도는 또 지난 2023년 11월부터 '찾아가는 전남 건강버스'도 운행하고 있다.

2022년 지방인구소멸대응기금 사업에 선정돼 확보된 9억 원의 예산으로 마련한 대형버스 2대에 골밀도측정기와 심전도, 치과 유니트체어, 고압멸균기, 한방 의료기기 등 최신 의료장비를 갖췄다. 차량들은 각각 전남 동부권과 서부권 의료서비스가 취약한 8개 군 지역을 주 3회씩 돌며 연간 220개 마을을 찾아 의과·치과·한의과 진료와 골밀도·콜레스테롤 검사 등 종합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 2021년부터 운행 중인 마음안심버스는 주 1회 운영하고 있는 데 연간 100여 개 지역을 방문해 정신건강 검진과 심리지원, 맞춤형 상담 등 정신건강 돌봄 서비스를 하고 있다.

사회서비스 접근이 어려운 농어촌·오지마을을 찾아가 주민들에게 통합 서비스를 하는 이들 '버스 삼총사'의 활약이 앞으로도 기대된다.

광남일보 www.GwangNam.co.kr

회장 양진석 대표이사 발행인 차재진 사장 편집인 이승배 주필 김상훈 편집국장 최현수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254
우편번호 61234
대표전화 (062) 370-7000
팩스 (062) 385-5400

1995년 12월 12일 창간
2012년 5월 3일 등록번호 광주 가-52<일간>

정치부	370-7040	논설실	370-7200
경제부	370-7020	임원실	370-7000
산업부	370-7010	총무국	370-7093
사회부	370-7030	사업국	370-7090
문화체육부	370-7234	광고국	370-7070
편집부	370-7082	독자관리국	370-7080
사진부	370-7050	서울지사	02)978-7090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사로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본지는 드림투데이와 기사 제휴해 제작합니다. 기자 이메일 도메인으로 광남일보(gwangnam.co.kr)와 드림투데이(gjdream.com) 소속 매체를 구분합니다.

기사제보·기고 보내실 곳 전화 062-370-7030 팩스 062-385-5400 이메일 gndn2018@naver.com